

동북아시아 산업정책 아젠다 발굴 조사
-한중일 FTA에 대한 중국 입장 청취-

2012. 12. 28

1. 출장 개요

(1) 출장자 : 김수동 연구위원(국제산업협력센터)

(2) 출장기간 : 2012년 2월 26일(일) ~ 2월 29일(수) (3박 4일)

(3) 출장지역 : 베이징(중국)

(4) 출장목적

○ 한-중-일 FTA의 배경, 가능성, 시사점 등에 대한 중국 전문가 의견 청취

○ 한-중-일 FTA와 TPP를 대비한 산업정책 과제 발굴

- 한-중-일 FTA와 TPP를 대비해 선도적으로 준비해야 할 과제

○ 동북아시아 신패러다임하에서 추진해야 할 산업정책과제에 대한 agenda 발굴 필요

(5) 출장일정

일자	시간	방문기관	면담자
2. 26(일)		· 인천 → 북경 이동 · 자료정리 및 면담준비	
2. 27(월)	오전	· Kotra	박한진 부장
	오후	· cj	김성훈 상무
2. 28(화)	오전	· 공업경제연구소	양단휘 연구원
	오후	· “한중 신성장동력 육성전략” 세미나	세미나 참석
2. 29(수)	오전	· 공업경제연구소	하준 연구원
	오후	· 북경→인천 이동	

2. 면담시 답변 내용 요약

질의) 중국의 산업정책 방향

-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0년 9월 중국 국무원은 “전략형 신흥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국무원 결정”을 발표
 - 전략형 신흥산업으로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산업, 차세대정보산업, 생물산업, 신에너지, 신에너지자동차, 첨단장비제조업, 신소재 등 7개가 선정
- 중국정부는 전략형 신흥산업 발전전문자금과 산업투자기금을 설립하고, 창업투자규모를 확대
 - 창업과 연구개발에 대한 위험보상제도를 도입하고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지원을 독려
 - 정부의 혁신지원제도를 개선하며, 투자와 소비를 유도하는 세수지원 정책을 실시
 - 전략형 신흥산업 발전에 유리한 산업표준과 중요제품기술표준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

질의) 중국의 FTA 추진 전략과 현황

- 중국은 중화경제권의 완성,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 등을 위해 2003년부터 FTA를 추진
- 중국 FTA 주무 부처인 상무부의 산하 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이 추진하는 FTA 전략은 아래의 6가지를 중시함.¹⁾

1) Wang Le(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), "한중 FTA가 중국과 동아시아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의의", 「제3회 한중 국제세미나」 세미나 페이퍼, 차이나포럼, 2011.7.

- ① 주변지역의 안전(아세안, 파키스탄)
 - ② 자원과 에너지 확보(칠레, GCC)
 - ③ 경제, 정치, 외교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(한국, 일본 등)
 - ④ 시장 다원화(호주, 뉴질랜드, 스위스 등)
 - ⑤ 통일 전 단계 차원(홍콩, 마카오, 대만)
- 현재 중국은 10개 국가 또는 지역과 FTA를 추진했으며, 7개국과는 협상 중, 3개국과는 연구 중에 있음.
 - 한국과는 2012년 초부터 양국 정상외 한중 FTA 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.

질의) 문화·관광산업 시장개방 및 상호협력 방안

- 유구한 역사와 다양한 민족 구성으로 폭넓은 문화적 소재를 보유하고 있어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큼.
- 중국은 문화콘텐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코자 정부주도형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, 산하 국유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.
-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과 치열한 경쟁을 고려할 때 지역별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판단
- 2000년 이후 문화콘텐츠산업 시장규모의 급격한 확대가 진행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콘텐츠제작 및 기술개발 등 공급측 능력 부족으로

시장규모 대비 자체 콘텐츠 공급 사이의 불균형 현상 발생함.

- 문화적 소비성향이 매우 개방적, 외국 문화에 대한 수용력이 뛰어나고 특히 '한류'에서 보이는 것처럼 한국문화에 대한 친밀도 높음
- 최근 자국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보호정책 추진으로 외국 문화콘텐츠 중국내 진입에 대해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임.
- 중국이 시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 규제가 심한 편임.

질의) 금융서비스산업 진출 및 협력 방안

- 중국은 개방 및 자유화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가장 우려하고 있고 낙후된 금융산업을 개혁하여 단기간 내 금융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.
- 국내 금융회사들의 이머징마켓 특히 중국시장으로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, 중국 금융시장은 성장잠재력이 워낙 크고 국내 경제와의 연관성이 높음.
- 중국의 금융시스템은 그 동안 당국의 개혁 조치로 시장화와 안전성이 제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금융산업은 비효율적 분배 등으로 취약한 상황임.
- 중국 금융시스템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은 크게 4가지로 ①대출 확대에 의한 은행의 자산건전성 악화, ②부외거래와 비공식 금융 증가, ③상대적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, ④경제성장의 불균형 확대 등임.
- 중국은 세계무역기구(WTO) 양허내용에 따라 금융서비스 시장을 전면 개방한 상태이나 여전히 각종 진입장벽 및 영업제한 사항들이

존재함.

- 예를 들면, 설립시 법적 형태, 외국인투자지분 제한, 지점설치 통제 등 각종 규제 장벽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.
- 금융서비스 분야는 국내규제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, 국내규제 사항 중 상당부분은 지방정부 소관이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정책 및 입장의 차이가 주요 장벽으로 작용함.
- 지방정부 소관 규제사항으로는 설립점포 규모, 최소 인원, 노동시장 관련 정책 등을 들 수 있음.
- 해당 지역 감독기관과의 친밀도에 따른 업무처리도 교역장벽으로 작용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, 선별적인 승인, 배타적인 거래, 승인금액 통제 등을 들 수 있음.
- FTA 등 금융서비스 관련 협상에서 국제수지나 건전성 측면에서 다양한 차별성을 용인하고 예외조항을 인정하는 경향도 상호협력의 걸림돌로 작용함.

질의) 한중일의 전자상거래 시장 상호 개방 추진

- 인터넷 망의 보급 및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온라인 시장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, 특히 중국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는 지난 5년간 연평균 145%의 고성장을 기록하였고, 향후에도 높은 성장이 예견
- 인터넷 강국인 한국의 경우 전자상거래 관련 노하우 및 기술 역사가 매우 높고, 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어 B2C 및 C2C 온라인 e-market이 발달하였고 향후에도 성장 가능성이 큼.

- 따라서 한중일 3국은 각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상호 개방함으로써 온라인 전자시장에서의 성장을 가속화시킬 필요